

한국어의 세계적 전파: 믿음인가? 가능성인가?*

김희숙**

Abstract

We live in the world that everything is being globalized. Language is not an exception. In this paper, we tried to develop a model explaining how a language could be globalized. We found out the following conditions for its internationalization: 1) the language should have economically powerful users, 2) the language is to be originated from the country or region having strong soft power, 3) the language must have large enough population internationally to make complex-systems initiated in its diffusion, and 4) the language has to be succumb to changes easily, that is, acceptable internationally. Only when all these conditions are met world-widely, the concerned language could become global. Then, we found that English is the closest but Korean is one of the farthest from the criteria of global language. However, we saw also that the fact that once English was a language of imperialism helped it achieve the present status greatly. Because the era of imperialism has already gone, we can say that a global language like English will never appear again. In this sense, probably the globalization of a language is a *passé* and overdue. Therefore, we could say that any attempt so far to globalize Korean would be futile. As a recommendation, with the help of our model, we suggest that if we try to internationalize Korean, in the respect of making Korean a 'lingua franca' among the people who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ir economic ties with Korea, like Asians, we can achieve parts of what the globalization of Korean is supposed to bring about.

[key words] global language(세계어), economic power(경제력), soft power(소프트 파워), language community(언어공동체), complex system(복잡체계), acceptability(수용성),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한국말의 국제화)

* 이 논문은 박영순교수님 화갑기념논문집에 수록된 논문을 보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청주대학교

1. 문제의 제기

어휘 “세계화”는 21세기를 대표하는 중요 개념이다.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화는 이미 하나의 사실(what is)이 아니라 당위(what should be)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곧, 무엇이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이다(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지 않는가는 이 논문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전통적으로 세계화가 가능하였던 영역, 곧 물질과 인간을 넘어서 다른 분야에까지도 투사되고 있다. 언어도 그 중 하나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어의 세계화는 벌써부터 의미 있는 논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정부마저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듯하다.¹⁾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특정한 언어의 세계화가 가능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이와 같은 실증적인(positive) 논의는 한국어를 세계화해야 한다는 규범적인(normative) 주장에 묻혀 거의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실증적인 기반이 없는 규범적 논의는 전혀 의도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런 면에서 위 질문은 현실적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 우리는 정부 및 학계가 **한국어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목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추진하여 왔다는 사실을 2002년 10월 9일 한글날에 문화관광부가 국립국어연구원 등과 함께 마련하고 발표한 ‘국어발전종합계획 시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어 경쟁력 제고와 국민들의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해” ‘국어 정책 추진기반의 조성’, ‘국어 환경 개선’, ‘국민의 국어 사용능력 정상화’, ‘국어정보화 기반 구축’, ‘**한국어의 범세계적 보급**’, ‘한글의 우수성 선양 및 국어문화유산의 보급’, ‘남북한 언어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특수언어의 표준화 지원 강화’를 8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조선일보, 2002년 10월 9일)고 한다. 여기서 ‘한국어의 범세계적인 보급’이 ‘한국어의 세계화’ 이외의 다른 말을 뜻하는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단순한 ‘세계적’이 아닌 ‘범세계적’이라는 표현은 정부와 일부학계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2. 모델과 방법론

특정한 언어의 세계화(globalization)는 그 언어가 본래 사용되던 지역이나 국가를 벗어나 전세계로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 특정 언어사용영역의 국제적 팽창을 가능하게 하는가? 여기에 본 논의의 타당한 출발점을 예고할 수 있다.

2.1. 경제력(economic power)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언어는 전파될 수 있고, 전통적으로 언어는 무역, 군사적 정복, 그리고 종교를 통하여 퍼진²⁾ 점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imperialism)³⁾시대가 끝난 이후, 언어를 전파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동안 지속된 군사적 정복과 종교전파의 사례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현대에서는 어느 특정한 언어사용국가들의 경제적 힘이 그 언어의 전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쉽게 가정할 수 있다.

경제력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 세계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나라, 또는 나라들의 언어만이 세계화될 수가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음 순위의 경제력 있는 국가들의 언어도 그 크기에 비례하여 세계화가 될 수 있는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력은 분명히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이 조건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2.2. 소프트 파워(soft power)

미국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2002)에 의하면, 국제정치에서 어느 한

2) Language spread was always closely allied to trade, to imperialist military ventures and to hopes for religious conversion and proselytism(Edwards, 1995:104).

3) 제국주의(imperialism)를 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의사에 관계 없이 영향력을 수립시키려는 정책으로 정의한다.[Imperialism is the policy of a state aiming at establishing control beyond its borders over people unwilling to accept such control(Encyclopedia of Britannica 1969 vol.12).]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힘(power)을 하드 파워(hard power)와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군사력은 전자에 속한다. 그러나 힘을 행사하는 데는 이처럼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방법이 있으며(Nye, 2002:35), 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즉, 다른 국가들이 어느 특정 국가의 가치 체계를 높이 평가해 그 나라를 특별화하고 또한, 그 나라만큼 번영된 개방사회를 만들고자 열망하면서, 그 나라를 뒤따르고자 한다면, 그 국가는 국제정치무대에서 원하는 성과를 얼마든지 거둘 수 있을 것이다(Nye, 2002:35). 이렇게 자국이 바라는 것을 다른 국가들도 소원하게끔 움직이는 힘을 소프트 파워(Nye, 2002:35)라고 지칭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는 예를 들어,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유용하다. 이를테면, 미국이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왜 한국이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는지, 왜 한국의 대학들이 미국의 대학들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지, 왜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미국에서 취득한 학위를 높이 평가하는지, 왜 한국의 외교정책은 항상 미국의 것과 보조를 맞추는지 등은 미국이 한국에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는 가정일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현상은 곧, 소프트 파워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프트 파워는 언어의 국제적인 전파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가령, 라틴어가 문자언어로서 지금껏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카톨릭의 영향을 무시하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주요 외국어를 공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치고 학습하는 동기로 그 외국어의 습득을 통해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즉,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배우고 추격하고자하는 목적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어떤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이 소프트 파워가 있다면, 그 영역 밖에서 그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높일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해당 언어의 국제적인 전파를 촉발(trigger)시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 파워를 통한 설명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근대이전 한국 민족은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빌려오고, 중국을 통하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외교적으로 중국을 따르고, 중국이 만든 유교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

리말을 지켜 낼 수 있었다. 이는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변수이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2.3. 언어공동체(language community)의 크기

특정언어의 국제적인 전파를 돕는 또 다른 조건은 무엇인가? 전세계적으로 그 언어에 대한 공동체가 충분히 형성되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언어 전파가 전형적인 복잡체계(complex systems)를 형성하는 것부터 언급할 필요가 있다.

2.3.1. 복잡체계(complex systems)

브라이언 아서(Brian Arthur, 1997)는 복잡체계(complex system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 요소들이 서로에게 일정한 패턴이 형성되거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성질을 띠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패턴과 성질이 원래의 각 요소에 피드백 즉, 되먹임 되면서 또다시 영향을 미치는 현상(Brian Arthur, 1997:19).

(1)에서, 복잡체계적 현상을 기존의 방식으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즉, 원인이 결과가 되기도 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여 'Y=f(X)'의 단순체계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브라이언 아서(Brian Arthur, 1997)는 복잡체계(complex systems)가 작용한 사례를, Microsoft의 Dos와 Apple 간의 PC 운영체계를 둘러싼 경쟁과 VCR 분야에서 VHS와 베타간의 녹화방식을 둘러싼 경쟁에서 들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론들은 시장에서 성공하기 -결과- 위해서는 제품의 기술적, 기능적인 탁월성, 그리고 판매 전략상의 우위- 원인- 등이 필요충분조건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곧, Apple이 결코 Microsoft의 Dos보다 못하지 않았

고, VCR의 녹화 방식에 있어서는 베타가 VHS보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우수했음에도 Apple이 Microsoft Dos에 베타가 VHS에 패배한 점이다. 브라이언 아서(Brian Arthur, 1997)는 Microsoft의 Dos와 VHS방식의 VCR사용자의 증가가 Dos와 VHS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어, Dos와 VHS제품의 공급을 늘리고, 다시 이것이 그 사용자들을 증가시켜, 결국 Apple과 베타방식에 대해 시장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복잡체계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을 다음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 A. 인간이 생각하듯이, 완전한 합리성(perfect rationality)보다는 제한적인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B. 현대산업에서 나타나는 '연결망 효과(network effect)'를 극대화한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는 제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Microsoft의 Dos와 Apple을, 그리고 베타와 VHS를 비교 분석할 능력이 없고, 이에 더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Dos와 VHS를 선택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software와 VCR tape가 증가된 결과, '연결망 효과'를 초래한 점이다. 따라서 Dos와 VHS제품을 구입하는 효과를 더욱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유도하게 한 것이다.

2.3.2. 언어와 복잡체계(complex systems)

언어의 전파과정에서, 앞에서 설명한 복잡체계(complex systems)원리 (2)가 언어정책적 전파 이외에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사회가 특정 언어를 택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그 언어가 가장 기능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언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이를 역설적으로, 그 동안 시도되었던 많은 인공언어(artificial or constructed language)의 실패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 Edwards

4) 하지만 글자(character)에 있어서는 보다 이성적인(rational)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한자대신에 실용적인 한글이 자리 잡은 것과 1920년대와 1930년대 터키의 케말 파샤에 의해 로마자가 이슬람의 전통과의 단절을 목적으로 도입되고 정착한 예[새뮤얼 헌팅턴(1997:191-197) 참조]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1994)에 따르면, 인공언어(artificial or constructed language)의 개념이 17세기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⁵⁾ 강한 민족언어는 역사와 제국주의적인 권위로 물들어 전세계적인 의사소통을 보조해주는 세계어(global language)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인공언어의 만들기 시도는 모두 실패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Edwards, 1994:44-45). 그 중에 가장 성공하였다고 보이는 에스페란토어(Esperanto)조차도 그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점이다. 곧, 세계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언어 사용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였으며, 최근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Edwards, 1994:45)⁶⁾고 보고한다.

둘째, 어느 특정언어가 전파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의 여부는 '연결망 효과(network effect)'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2B)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공언어(artificial or constructed language)의 실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dwards는 만약 인공언어들을 사용하는 공동체(community)가 형성되어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Edwards, 1994:46).⁷⁾ 즉, 어떤 특정한 지역에 에스페란토어(Esperanto)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에스페란토어의 사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그 언어가 더욱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고, 이것이 에스페란토의 사용을 더욱 증가시킨 결과, 그 지역사회의 한 언어로 정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결국 인공언어의 실패가 '연결망 효과(network effect)'⁸⁾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는 표현과 다를 바

5) Going back no farther than the seventeenth century, we find that Comenius(1592-1670), Descartes(1596-1650) and Leibniz(1646-1716) were all interested in a universal auxiliary language that could cross boundaries(Edwards, 1994:43).

6) There is little doubt that foremost among constructed languages though it is, Esperanto has not--particularly in recent times--captured sufficient amount of general attention to become the functioning worldwide auxiliary its proponents wish(Edwards, 1994:45).

7) These varieties might be seen as more appealing if there were a community of speakers in which one's acquired competence could be set to use(Edwards, 1994:46).

8) 이러한 연결망(network)과 언어의 관계가 사회언어학에서 방언의 발생과 확산을 둘러싼 연구를 통해서 많이 논의되어 온 점은 이미 인지된 바다. 제니퍼 코츠(Jennifer Coats)는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은어와 같은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은 노동계급 집단에서 남성들의 치밀한 연결망이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사투리 규범을

없다.⁹⁾

2.3.3. 언어의 국제화와 복잡체계(complex systems)

언어의 우월성을 순수언어학에서 논의할 수 없다. 세계의 어떤 언어도 그 사용자들의 목적과 환경에 비추어 기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다.¹⁰⁾ 따라서 모든 언어는 국제화될 가능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복잡체계(complex systems) 모델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동등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언어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충분히 큰 언어공동체(language community)¹¹⁾를 형성한 언어만이 더욱 가속적, 국제적인 그 세력권의 확장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즉, 국제적으로 특정한 언어 사용자 수치가 임계치(critical point)¹²⁾를 넘어설

유지시킨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여성들의 경우는 언어규범을 강요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연결망에 속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제니퍼 코즈, 1998:150). 따라서, 협의로는 특정한 언어표현이나, 광의로는 어떤 한 언어의 전파 정도가 '연결망 효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9) Edwrad(1994)는 다음과 같은 인공언어의 실패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소개하고 있다.

H. L. Mencken noted that the trouble with all the universal languages is that the juices of life are simply not in them. According George Steiner, it is the absence from them of any natural semantics of remembrance which disqualifies artificial languages from any but trivial or ad hoc usage. Tolkien observed that Esperanto and other similar attempts are far deader than ancient unused languages, because their authors never invented any Esperanto legends(Edwards, 1994:45).

10) There are no 'primitive' languages, and although different varieties can be very divergent indeed, in the way they interpret and codify the world none has been found which is deficient for its speakers' purposes and environment(Edwards:18).

11) 언어 공동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Hymes(1974)는 speech community와 linguistic community로 구분하고 SC는 발화자 중심의 개별적 방안을 포함하는 언어 공동체이며, IC는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언어공동체로 분석한 바 있다.

12) 물이 끓는 온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섭씨 100도이다. 섭씨 99도까지는 끓지를 않다가 1도를 추가하면—양(量)의 변화—끓기 시작하여 물이라는 액체가 수증기로 기체화한다. 물은 섭씨 0도부터 얼기 시작한다. 섭씨 1도 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1도만 내려가면—양(量)의 변화—얼기 시작하여 고체인 얼음이 된다. 즉, 섭씨 100도와 0도를 중심으로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던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섭씨 100도와 0도를 물의 질(質)적 변화를 일으키는 임계치(critical point)라고 부른다. 이러한 임계치를 중심

정도로 그 언어에 대한 수요가 축적될 경우에만 국제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언어공동체의 크기로 해당 언어의 전파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언어는 상품처럼 인간으로부터 소외(alienate)시킬 수 없고, 그래야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¹³⁾ 가령, 상품인 VHS가 베타를 구축하는데, 어느 쪽의 지시물 수요가 임계치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대세를 결정짓는데 무엇보다 중요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언어전파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그 해당언어를 대화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또한 언어의 생명력을 붙여넣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점이다. 아무리 언어 수요가 임계치를 넘는다 하더라도, 언어 사용자의 대중에 의하여 언어의 생명력이 유지되지 못하면, 언어는 학습의 대상언어로 쇠락하여 필요한 경우어나 선택된다. 이론적으로 힘을 사용한다면, 복잡체계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어떤 언어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체를 확보 유지할 수 있지만, 이때 화자가 그 언어로부터의 소외(alienation)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더 이상 강제력의 응집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들이 그 언어를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끝난 현대에서, 어떤 언어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언어사용자들이 받아들이는가? 즉, 그들이 어느 정도로 그 언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또한 학습할 대상언어로 부담을 느끼는가? 이에 해당언어 공동체의 성쇠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2.4. 언어 전파와 수용성(acceptability)

Kachru(1992)는 언어적 제국주의(linguistic imperialism)가 다음 (3)의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실현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으로 양(量)의 변화가 질(質)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는 사회현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막스(Karl Marx)는 이를 역사발전을 설명하는데 적용하였다[At a certain point, merely quantitative differences pass over by a dialectical inversion into qualitative distinctions (Marx, 1977:423)].

- 13)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상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품은 상품이다. 언어를 인간으로부터 소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언어사용에 대한 대가를 누구도 지불하지 않는다.

(3)

초기 식민주의/1:변위	강압적/강제, 강요
신식민주의/2:수용	비강압적, 지식층에 편의제공/조작, 현명한 중재
새 식식민주의/3:순화	사고적 설득/은밀한 제재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제국주의시대가 이미 지난 오늘날 어떤 특정한 언어의 전파에서, 더 이상 그 해당언어 전파국가의 강압적인 수단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점을 시사한다. (3)에서 Kachru(1992)는 제국주의시대라고 보아도 충분한 그의 표현을 빌리면, 초기 식민주의 시대에 제국주의국가들이 사용하였던 언어 정책과 그 이후의 그들의 언어정책을 강압성의 유무로 구별하고 있다. 곧, 이제는 피 전파국가의 화자로 하여금 그 언어를 당사자들이 필수요로 하는 언어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언어전파를 위해 Kachru(1992)가 언급한 것처럼, 비 강압적이거나 은밀한 제재방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당 언어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언어는 인지하다시피 사회적 산물이므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에 민감하다.¹⁴⁾ 따라서 한 외국어가 본래의 영역 밖에서 이러한 자발적인 채택 과정을 거칠 경우, 그 대화자들의 필요에 따르는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¹⁵⁾ 경우에 따라서는 피진(pidgin)¹⁶⁾이나, 크레올(creole)¹⁷⁾과 같은 다른 변종어와의 혼합(amalgam)까지 경험할 가능성도 있지만 언어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변형은 그 해당언어의 국제적인 전파를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14) Languages are clearly vulnerable to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affecting their uses, and physical disease can often rapidly decimate a speech community (Edwards, 1995:20).

15) 언어의 역사를 보면 두 개의 사회집단이 산맥이나 강 하나만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 다른 언어습관이 규범화된다. 수천 킬로미터씩 떨어진 곳에서 전혀 다른 기후와 산천 초목을 접하는 집단들이 서로 다른 국가적 방언을 키워낸다는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David Crystal, 2002:186-187)

16) 피진(pidgin)은 제한적이거나 단순한 언어의 혼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17) 크레올(creole)은 피진(pidgin)이 발전한 것으로 하나의 피진(pidgin)이 모국어가 되고 피진(pidgin)을 사용하는 사회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자라면서 이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경우 나타난다.

있다. 이는 한편으로, 언어 전과국가의 태도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곧, 국제적인 표준어를 강요하지 않는 자세는 외부의 대상언어 사용자들에게 이를 더 이상 외국어로 받아들이지 않게 수용하도록 해당언어 사용에서 자발적인 동의를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수용성(acceptability)은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지만, 전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어떤 다수언어(major variety)가 다른 다수언어보다 국제적으로 훨씬 널리 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 언어들이 다수언어가 되었는지를 밝혀줄 수는 없다.

2.5. 가정과 방법론

2.1-2.4에서 어떤 특정한 언어가 국제적으로 전과될 조건들을 검토한 결과,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각각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2.1-2.4의 네 가지 변수를 통합하여 고려하였을 경우, 보다 모순 없는 모델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간단히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 (4)와 같다.

$$(4) Y(\text{언어의 국제적 전과}) = g(X1, X2, X3, X4)$$

X1: 해당언어 사용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력

X2: 해당언어 사용국가 또는 지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X3: 해당언어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

X4: 해당언어의 수용성(acceptability)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 (5) A. 어떤 언어 사용국가의 경제력이 강해야 한다.
- B. 해당언어 사용국가가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있다.
- C. 그 언어공동체가 국제적으로 복잡체계(complex systems)를 불러오기에 충분히 큰 경우이다.
- D. 이때, 그 특정언어가 변화의 수용성을 최대한 작용할 때, 그 언어는 국제적으로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 E. 나아가 특정언어가 이러한 조건들을 “범 세계적”으로 충족시킬 경우, 그 언어는 세

계화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가장 세계화가 진전된 언어로 영어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가설의 검증은 현대 영어가 과연 (5)의 모델에 부합하는 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첫째, 영어가 과연 세계어에 접근하고 있는 언어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만약 영어가 다른 다수언어(major variety)와 별 차이가 없다면, 영어를 검토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둘째, 영어 사용국가의 경제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기준인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이 사용될 것이다. 셋째,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넷째, 영어는 물론 다수언어이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중국어도 다수언어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단순한 사용자 수 비교는 그 의미가 없다. 본래의 모국어 영역에서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모국어권 밖에서 사용하는지가 바로, 그 언어사용자 수치가 전 세계적으로 복잡체계(complex systems)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임계치(critical point)에 도달했는지 즉, 그 언어공동체(language community)가 충분히 큰 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다섯째, 다수언어는 많은 피진(pidgin)과 크레올(creole)을 포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산술적인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영어가 얼마나 변화를 수용하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영어전파국가와 다른 다수언어국가의 그들 언어공동체의 변종어 분포와 언어 전파에 대한 태도를 대비하는 것이다.

3. 경험적 검증

3.1. 영어의 세계어(global language)로서의 변수 검증

영어가 다수언어 중의 하나라는 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 하지만 영어를 세계어(global language) 또는 이에 가장 가까운 언어라고 할 때에는 질적으로 다른 다수언어들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영어를 이들과 차별시키는 특징은 무엇인가? 이를 영어에 대한 비영어권의 태도, 간단히 말해서 영어의 가치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3.1.1. 언어의 습득가격

지시물의 가격은 가치와 비례하고, 가치는 사용가치(use-value)와 교환가치(exchange-value)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¹⁸⁾ 여기서 사용가치는 유용성(utility)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교환가치는 화폐나 노동투입량과 같은 교환을 위한 객관적인 척도와 동일시된다. 사용가치가 없는 지시물의 교환가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의 전제가 된다. 그렇지만 가령, 공기처럼 사용가치는 분명, 막대하더라도 적어도 현재까지 누구도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가치가 없는 경우는 많이 있다. 그러면 언어의 경우, 어떻게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

언어학적으로 보았을 경우, 어떤 언어도 다른 언어에 비하여 더 우수하다거나 못하다고 말 할 수 없다.¹⁹⁾ 또한, 언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해당언어 사용자의 필요에 충분히 변화한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언어학, 인류학, 그리고 다른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도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언어는 사용가치(use-value)의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 차이가 없으며, 한 특정 언어권 안에서 대상 언어는 사용자들에게 사용가치(use-value)만 있고, 교환가치(exchange-value)는 없는 마치, 공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에 다시 비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는 바로 대상언어를 다른 언어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질적, 소위 대표적으로 화폐 또는 비물질적 수단과 교환(exchange)하여 습득하고자 노력하는가? 이로써 말할 수 있다. 곧, 통상적으로 외국어의 습득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만약, 습득비용이 낮다면 그 언어의 가격이 낮은 것이고, 습득비용이 높다면 그 언어의 가격이 높다는 것을 의

18) The usefulness of a thing makes it a use-value. It is conditioned by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commodity, and has no existence apart from the latter. Exchange-value appears first of all as the quantitative relation, the proportion, in which use-values of one kind exchange for use-values of another kind(Marx, 1977:126). Nothing can be a value without being an object of utility(Marx, 1977:131).

19) It is quite clear that no language can be described as better or worse than another on purely linguistic grounds(Edwards, 1995:90).

미한다.²⁰⁾

3.1.2. 언어의 수요와 공급

이제, 외국어의 양-수요와 공급-과 그 해당 외국어의 가격간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 할 수 있다. 먼저 외국어의 수요에서, 만약 어떤 외국어의 가격이 낮다면, 그 외국어를 배우려는 시도 곧, 수요가 증가할 것이지만 그 외국어의 가격이 높다면, 대상 외국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 할 수 있다.²¹⁾ 곧, 외국어수요는 외국어 가격과 부정(negative; -)의 관계를 보인다. 외국어의 공급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급자인 외국어 교육기관은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만약, 외국어의 가격이 낮다면, 외국어교육기관의 숫자는 적을 것이고, 외국어 가격이 높다면, 외국어 교육기관이 많을 것이다. 곧, 외국어 교육기관에 의한 외국어 공급은 외국어 가격과 긍정(positive; +)의 관계를 보인다.

그렇지만,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외국어 양에 영향을 끼친다. 우선 외국어 수입국의 태도를 보면, 수요는 정부가 외국어의 사용을 장려하거나, 방관하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무슨 이유로든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고자 할 경우, 해당외국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어 수입국의 수용방식과 외국어의 수요는 긍정(positive; +)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 공급의 경우, 외국어 수출국의 정책이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곧, 외국이 자국의

20) 우리는 언어의 사용가치(use-value)와 교환가치(exchange-value)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언어의 가치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이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Inoue(2000)를 들 수 있다. 그는 일본에서의 외국어가치를 교육방송에서 방송되는 시간과 교재 판매량, 외국어학원 수, 그리고 외국어사전등의 출판물의 양으로 평가하려고 하였다. 이는 다름아닌 교환가치(exchange-value)의 구성요소들이다.

21) Inoue(2000)에 따르면, 일본인들에게 있어 가장 습득하기 쉬운 곧, 가장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외국어는 한국어라고 한다. 하지만 그가 밝혔듯이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한국어보다 더 습득하기 어려운 곧, 습득하기에 더 비용이 드는 영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이 연구에서 언급한 외국어 수요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외국어 수요는 외국어간의 습득비용과 수요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한 외국어의 습득비용이 변할 때 그 외국어의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채택한다면, 당연히 그 외국어의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 수출국의 정책과 외국어 공급도 역시 긍정(positive: +)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독립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외국어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다음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6) 외국어 수요: $D=h(p, a)$

p (price): 외국어 가격, a (attitude): 외국어 수입국의 수용태도

외국어 공급: $S=j(p, l)$

p (price): 외국어 가격, l (language policy concerning its diffusion):
외국어 전파 수출국의 정책

(6)에 의하면, 주지하다시피 외국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외국어습득 비용과 그 외국어의 양, 곧 균형 수요량 또는 균형 공급량을 발견할 수 있다.²²⁾ 또한 이를 외국어가격과 외국어 량으로 구성된 2차원 평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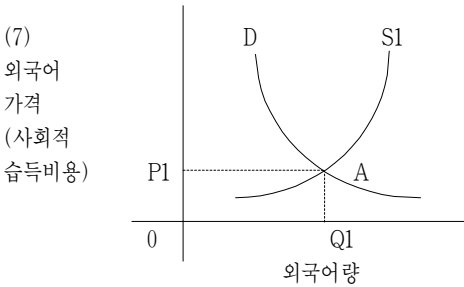
3.1.3.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

다수언어 중의 하나로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가 있다. 그러면,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는 언어가격과 언어량이 2차원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시될 수 있을까?

<그림 1>은 언어의 수요 'D'와 언어의 공급 'S1'이 만나는 균형점 'A'에서 언어의 양 'Q1'과 균형가격인 'P1'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P1'과 'Q1'이 언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 언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만 습득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림 1>은 바로, "lingua franca"로 불리우는 국제어 및 스와힐리어 같은 '링구아 프랑카'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22) 수요 공급의 법칙과 이를 통한 균형가격과 균형공급량 또는 수요량의 결정에 대하여 조순, 정운찬(2000)이 잘 설명하고 있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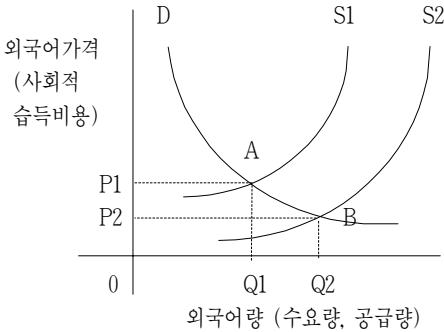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어의 수요와 공급(외국어가 'lingua franca'인 경우)>

3.1.4. 제국주의 시대의 언어

역사적으로 언어사용국가의 강제에 의해서 다수언어가 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제국주의시대의 식민지 국어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언어사용국가의 의도에 의해서 언어가 전파될 경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명시적으로 'lingua franca'와는 다른 가치의 평가를 받았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차이를 외국어 가격과 외국어 량의 2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국가의 언어가 'lingua franca'이고 그 영역을 의도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고 상정하자. 그러면, 이는 해당언어의 공급을 'lingua franca'로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적절한 외국어 량을 넘어서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곧, 공급곡선이 'S1'에서 'S2'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균형점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에서 'B'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해당 언어량이 'Q1'에서 'Q2'로 증가하고, 반대로 습득비용인 언어가격은 그 언어가 단순히 'lingua franca'인 경우의 'P1'에서 'P2'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가격 'P2'와 'Q2'는 인위성이 포함되었을 때에 도달 가능하다. 이는 특정언어사용국가들이 의도적으로 그 언어를 전파시키고자 하였다면, 그 언어의 영향력의 증가와 함께 습득비용, 해당 언어가격의 하락현상이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그림 2. 외국어의 수요와 공급(외국어가 제국주의 언어인 경우)>

예를 들면, (8)의 경우를 한국어사회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일본식민통치기간동안 일본이 공교육을 통하여 수행한 언어침식정책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창씨개명까지 강제한 행위는 일본어의 전파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²³⁾ 이러한 언어정책이 한국인의 일본어습득비용을 (8)에서처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²⁴⁾

3.1.5. 세계어(global language)로서의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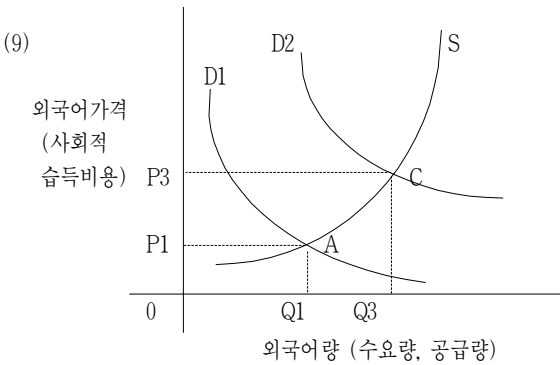
이러한 언어습득비용을 통한 분석은 현대영어의 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영어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만 배운다면, 다른 다수언어나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와 다를 것이 없다. 가령, 전 세계적으로 영어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장됨에도 습득비용이 저렴하다면, 영어수출국의 의도가 작용한다는 곧, 영어가 여전히

23) 박순애와 배종각(2000)은 일제가 식민지민에 대한 동화를 목적으로 공교육을 통하여 일본어의 보급에 노력을 기울였고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이 추세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4) 김영명(2000)에 의하면, 식민지개척시대에 다른 제국주의국가들도 자국의 언어를 공교육을 통하여 식민지에 보급시키고자 노력했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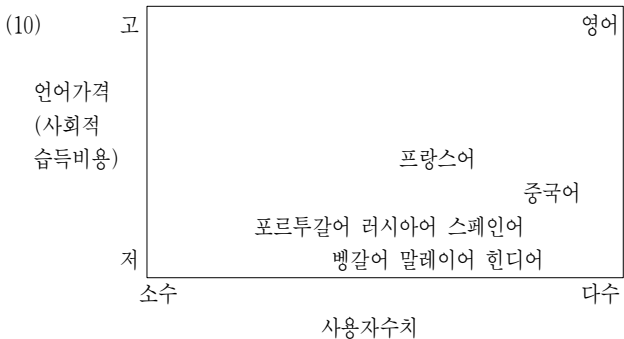
히 제국주의적이라는 증거일 수 있다. 그러나 영어 량의 증가와 더불어 습득비용이 높다면, 영어는 'lingua franca'도 아니고 제국주의적인 언어도 아닌 다른 다수언어들과 변별되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언어일 것이다.²⁵⁾

〈그림 3〉은 공급 측면에서 변화 없이 영어수요의 증가로 영어수요곡선이 'D1'에서 'D2'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영어 량 'Q1'에서 'Q3'로, 그리고 그 습득비용 'P1'이 곧, 영어가 단순히 'lingua franca'인 경우의 영어가격에서 'P3'로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어가 필요 없는 화자들도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상당한 물질적인 그리고 비물질적인 투자를 한다는 의미와 같다. 영어는 확연히 (8)의 〈그림 2〉를 통해서 확인한 제국주의적 언어와 구별된다. 영어사용국가의 의도가 아닌 수요의 증가로 균형점이 곧, (9)의 'A'에서 'C'로의 수요 상승이 영어 량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그림 3. 영어의 수요와 공급 (글로벌 언어)〉

25) 특정한 언어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반드시 언어 사용자의 수치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중국어 모화자수 약 15억/ 영어 모화자수 약3억) 일종의 '힘'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래 영어와 다르게 탈국가적 가치를 창조, 개발하여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는 '힘'의 언어로 영어가 부상되어 위험성마저 경고하고 있다(Kachru, 1995:295).



〈그림 4. 영어와 다른 다수언어와의 비교〉

언어가격의 개념을 한 언어사회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어떤 언어를 배우는데 투자하는 각 언어사회의 비용의 합으로 바꾼다면, 영어와 다른 언어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횡단면적(cross-sectional)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는 (10)과 같다. 〈그림 4〉는 현대영어가 소수언어(minor variety)가 아니고 다수언어(major variety)이면서, 동시에 언어가격 측면에서 다른 언어들보다 높다는 것을 (10)에서 역시 지시한다.

따라서 모국어권 외부에서 영어가 받는 평가가 어떠한지라는 것은 이를 미루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현실은 이를 강화 시키어 주고 있다. 우선 한국의 경우,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어학원(어린이 및 성인 대상) 수강료는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월 21시간 기준으로 66,150원 내지 94,500원 정도이고,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의 영어사교육에 가구 당 88,000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0). 또한 매년 전 국민이 영어에 공 사교육을 통하여 천문학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²⁶⁾ Inoue(2000)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외국어학원 수, 그리고 외국어사전 숫자에서 다른 어떤 외국어도 영어에 미치지 못하고, 그 차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앞에서 언급한 유럽과 이러한 한국, 일본의 자료는 영어의 수요

26) 1997년의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영어교육에만 한해 5억불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1997년 2월 21일).

량이 최대이며, 언어가격이 높이 설정된 다수언어(major variety)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세계어(global language)에 대한 기술적인 정의일 수 있다.

3.2. 모영어권 국가들의 경제력

현재 주요 영어사용국가들 곧,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세계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1)의 <표 1>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세계의 총 국민소득(GNI) 약 31조 3천 1백 5십억 달러 중, 이들 국가들이 약 39%인 12조 2천 3백 4십 9억 달러를 생산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모국어권 국가들은 이에 결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언어사용 수치에서 2위를 차지하는 중국어의 경우, 경제력은 영어권의 약 10%에, 그리고 세계경제에서는 3.9%에 불과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력 측면에서 모영어권에 필적할 언어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1) <표 1. 2002년 현재 모국어권 국가들의 경제력비교>

Source: World Bank(2002)

언어	모국어권 국가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US\$ billion)
영어	미국	9,601.5	
	캐나다	649.8	
	영국	1,459.5	
	아일랜드	86.0	
	뉴질랜드	49.8	
	오스트레일리아	388.3	
	(sub-total)	(12,234.9)	
중국어	중국	1,062.9	
	홍콩	176.2	
	(sub-total)	(1,239.1)	
힌디어	인도	454.8	
스페인어	스페인	595.3	
	멕시코	497.0	
	아르헨티나	276.2	
	(sub-total)	(1,368.5)	
러시아어	러시아연방	241.0	
프랑스어	프랑스	1,438.3	
총계		31,315	(US\$ billion)

3.3. 영어권 국가들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영어권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는 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례는 세계화를 둘러싼 범세계적인 논쟁이다. 주지하다시피, 세계화 -상호 의존적 네트워크의 전세계적인 확산(Nye, 2002:130)- 가 과연 앵글로색슨(Anglo-Saxon)²⁷⁾화, 그 중에서도 미국화와 같은 말인지 아닌지가 실질적인 주요 논점 중의 하나다. 반면에, 다른 언어권 국가의 영향력이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세계화가 미국 중심적(Nye, 2002:134)이라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다. 또한 지금 진행중인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정보화 혁명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나오고, 또한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의 콘텐츠 중 적잖은 부분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화되고 있다(Nye, 2002:134)는 주장도 가능하다. 물론 이에 따라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 또한 다른 어떤 언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추세가 강화됨과 더불어 한국의 중등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교육의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영어 배우기 열풍이 퍼지고 있는 것은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3.4. 영어공동체(English language community)의 크기

모영어권의 압도적인 경제력이 현대 영어의 지위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어가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40%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여전히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즉, 전 세계적으로 오고가는 편지, 텔렉스 등의 75% 이상이, 학술잡지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된 인터넷 정보의 80% 이상이 영어로 쓰여지고,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이고, 제2외국어로서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²⁸⁾

27) 앵글로색슨(Anglo-Saxon)은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1974)에 따르면 "영국의 후손들에 속하는(of English descents)"로 정의된다.

28) Today there is no doubt that English, the mother tongue of Anglo-Saxon nations, has the greatest status as a lingua franca(Edwards, 1995:41). That 75% of all letters, cables

은 명백히 영어사용국가들의 경제력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앞에서 확인 설명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영어사용자 수가 임계치(critical point)를 넘어서 복잡체계(complex systems)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언어공동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는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공식언어, 또는 이중 공식언어로 채택되고 있으며, 그 밖의 20여 개 국가들에서 중요한 언어로 취급받고 있다.²⁹⁾ 이론상으로 일상적으로 자국에서 영어를 접하는 사람의 수는 약 20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David Crystal, 1998:88). 거의 전 세계국가들의 3분의 1 이상에서, 그리고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경쟁시킨다는 것은 다른 어떤 주요언어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향력이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영어를 생활어, 또는 생활어 수준으로 쓰는 사람의 총계는 6억 7천만 명이 되고, 반대로 '생활어와 같은 유창함'이 아니라 '웬만한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18억 명이 된다고 추정되며, 대개, 그 중간의 12억에서 15억 정도가 영어사용인구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David Crystal, 1998:94). 따라서 영어가 모국어 화자보다는 비모국어 화자를 훨씬 더 많이 거느리고 있다(최은경, 2000:12)는 주장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수치는 영어를 일상 생활어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영어가 필요 없음에도 배우고 사용하려고 의도한다는 점이다.

이때, 언어 전파의 복잡체계 현상을 촉발시킬 임계치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절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영어에서처럼, 다수언어들 중에서 모국어권의 사용자수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해당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려 할 경우, 그 사용자 수치가 임계치에 도달하였다고 곧, 충분히 큰 규모의 언어공동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크게 잘못된 판단이 아닐 것이다.

and telexes are in English, that more than half the world's learned journals are in English, that 80% of all computer information is stored in English, that the language of most multinational companies is English, and that English is formally studied as a second language more than any other one are enough to prove it(Edwards, 1995:41).

29) English is used as an official or semi-official language in over 60 countries, and has a prominent place in a further 20(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1987).

3.5. 영어와 수용성(acceptability)

영어와 다른 주요언어들과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영어를 전파시키기 위하여 영어 사용국들이 특히, 미국의 경우, 특별한 정책을 견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다.³⁰⁾ 이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이었던 프랑스와 스페인의 언어 전파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예를 들어, 프랑스어와 영어를 뚜렷하게 구별시켜 주는 점은 표준영어를 규정하고, 이를 다른 언어의 영향으로부터 지키려는 시도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우, 1635년에 표준 프랑스어의 보급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어학회(Academie Francaise)를 설립한 바 있고,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였던 스페인도 1713년에 같은 기능을 하는 스페인어학회(Real Academia Espanola)를 설립한 바 있다.

반면에, Edwards(1995)에 따르면³¹⁾, 물론 영어표준어를 정리하고 지키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언어사용자가 올바른 영어의 궁극적인 결정자(Edwards, 1995:13)'라는 믿음이 영어학과와 일반 화자사이에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전통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영어사용국들이 영어공급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전파시킬 대상(표준영어)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관된 언어정책이 작용한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여하튼 영어의 전파와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개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영어를 전파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작용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30) 영국과 미국의 언어정책을 요약하여 무정책이라고 보고 있다(송기중, 1993). 여기서, 영국은 물론 미국조차 영어가 국가 공용어라고 명시한 법이 존재하지 않은 이유에서인지, 중앙정부의 언어정책 수립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언어에 관계되는 국가적 방침은 원칙적으로 일반 언어 사용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곧, 언어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실험 연구를 다수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어 언어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동안 수행되고 있다는 보고이다. 특히, '표준영어'라는 어휘는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방송 혹은 텔레비전의 아나운서의 영어가 '표준'이라고 주장하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관념을 표현하는 말로 해석하고 있다.

31) Conspicuous by its absence is an English-language academy(Edwards, 1995:13).

둘째, 영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영어가 다양한 변이형, 내지 변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 달리, 프랑스의 경우는 그들의 언어에 관한 소유의식이 전통적으로 강하고, 그 순수성을 지키고,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 표준 프랑스어를 가르치는데, 항상 열성적이라는 지적이 있다(Edwards, 1995: 105).³²⁾ 이 결과, 프랑스 본토의 프랑스어, 아니 더 나아가서 파리중심의 프랑스어와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 프랑스어를 낮게 평가하는 차별화 경향을 조장하였다고 주장한다.³³⁾

그런데, 영어는 다르다. 프랑스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곧, Edwards(1995:103)는 이에 관하여 영어는 최소한 변종을 널리 허용한 점에서 프랑스어와 다른 방식으로 국제화된 점을 보고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이유로 제국주의시대가 끝나고 난 후, 빠르게 과거의 많은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에서 '영어 공용어'로 수용하게 되어, 더욱 쉽게 국제화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³⁵⁾

영어의 전파에서, '식민지의 언어'를 '영어 공용어'로 채택한 과정을 추적한다면, 모국어의 틀로 여과된 생명력이 강한 영어의 변종어가 확산되어 영어 공용화 단계까지 확장된 전파의 방식이다. 이는 식민지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에 비하여, 영어사용국가들은 대중화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용성에 의지하는, 한 변수를 크게 고려한 결과이다.³⁶⁾

32) The French have traditionally been much more possessive of their language and while working hard to bring it to those unfortunate enough not to already speak it, have also been zealous in protecting its 'purity', even among themselves(Edwards, 1995:105).

33) The French-speakers in Quebec are often looked down on in France, but they should not feel uniquely affronted: almost any French speaker outside Paris is liable to feel patronized when visiting the capital(Edwards, 1995:105).

34) Spolsky(1998)에 의하면, 식민지 언어교육 정책은 언어확산 측면에서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곧, 국가 경계, 내지 식민지 제국 경계를 넘어서 언어를 확산시키려는 정책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경우는 불어를 확산시키려는 프랑스 전통을 들고 있다.

35) English is becoming truly international in a way that French is not, at least in terms of accepted local varieties, and a language once tainted by imperialism is rapidly becoming 'ours' in many parts of the world(Edwards, 1995:103).

36) 이때, 언어정책(language policy)은 사회 내지 국가와 연관되는 것으로, 국가가 수행하는

4. 한국어의 전파문제

어떤 특정언어가 세계화(globalization)하는데 필요한 조건, (4) 변수로 3.에서 영어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도가 한국어의 전파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4.1. 한국어의 세계화

영어는 (5)의 가설에 따르면, 세계화가 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언어이다.

그러면, 한국어의 경우는 어떠한가?

첫째, 한국어를 사용하는 남북한의 경제력은 결코 영어사용국가들의 경제력에 미치지 못한다. 2002년의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는 2000년 현재 한국이 약 4천 2백 11억 달러의 국민총소득(GNI)을 즉, 세계의 약 1.3%를 생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소위, 선진 6개국의 국민총소득(GNI)의 합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둘째, 세계화(globalization)는 21세기의 화두이며, 이를 영어권 국가 그 중에서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실행을 의미한다. 언어정책은 언어계획(language planning)의 수행이다. 언어계획은 한 언어의 위계와 그 내용에 관한 표준사항을 입안하여 언어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계계획(status planning), 실제계획(corpus planning), 보급계획(diffusion planning)의 단계가 있다(임영철, 1998 참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유정책, 직접적] [+유정책, 간접적] [+무정책] [-유정책, -무정책]

[+유정책]에는 하위에서 언어계획(language planning)과 관련지어, 다시 직접적 정책과 간접적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직접적 정책은 곧, 국가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이고, 간접적 정책은 예를 들어,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유학생을 받아 교육을 시킨 후, 본국으로 보내는 실행을 하는 경우이다. 이에 비하여 [+무정책]은 무언어계획에 의한 언어 전파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무역에 의한 언어교류를 의미할 수 있다(예: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Spolsky, 1998 참조).

반면에, [-유정책, -무정책]은 세계화된 영어에서 발견된다. 이는 언어의 수요량이 임계치를 넘치는 경우이다.

있는 미국이 사용하는 영어가 지금도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국어이 믿고 추구하는 가치를 가까운 장래에 영어권국가가 믿고, 추구하는 가치만큼이나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2000년 현재 남한의 인구는 약 4천 7백만을, 그리고 북한의 인구는 약 2천 2백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 약 2백 만이 넘는 해외동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모든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총수는 8천만 명이 넘지 않는다. 한편, 한반도 안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수에 비해 해외에서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턱없이 적다. 이는 세계적인 언어전파에서 필요한 임계치(critical point)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을 즉, 충분한 크기의 언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가령, 일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세계 총국민소득(GNI)의 약 14%인 4조 5천 1백 9십 1억 달러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거의 대다수가 자국민인 1억 2천 7백만 명에 국한되어 있고, 누구나 알다시피 세계화되어 있지 않다.

넷째, 한국어의 수용성(acceptability)의 정도를 영어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역시 불가능하다. 영어는 이미 국제화의 오랜 역사를 경험한 결과, 그 만큼 영어의 변이형 내지 변종어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수용성이 높은 지를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영어의 중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아직도 법적으로 표준어를 정하지 않은 점은 한국말의 경우, 그러하다는 사실³⁷⁾과 비교하면, 영어가 이의 수용성의 여지를 그 만큼 증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7) David Crystal(2002)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는 아직 법적으로 정해진 공용어가 없으며 미국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지만 최근에 이르러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90년의 인구 조사 당시 영어를 포함하여 329개의 언어가 정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David Crystal, 2002:170).

4.2. 한국어말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그러면, 모든 것이 세계화되는 시대에서, 한국어가 추구할 수 있는 미래의 위상은 무엇인가?

다중언어사용능력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면, 이는 인류에게 있어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³⁸⁾이기 때문에 한국어말이 다른 언어권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유 외에도 여기서 발전시킨 모델, 곧 (4)에 따르면, 세계어(global language)로서의 한국어가 아닌, 국제어(international language)로서의 한국어말을 그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국제어가 의미하는 바는 세계전체가 아닌,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사회집단에서 한국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곧 한국어를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 사용하는 것이다.

(12) <표 2. 우리나라와 주요국가들의 교역(수출+수입)규모>

단위: US\$백만

Source: 산업자원부(2002)

년도	1999	2000	2001
미국	54,397(0.206)	66,853(0.200)	53,587(0.183)
ASEAN	29,872(0.113)	38,307(0.115)	32,375(0.111)
중국	22,552(0.085)	31,254(0.093)	31,493(0.108)
일본	40,004(0.151)	52,294(0.157)	43,139(0.147)
EU	32,870(0.124)	39,212(0.117)	34,548(0.118)
총계	263,437	332,749	291,537

한국어가 '링구아 프랑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4)의 변수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는가에 있다.

첫째, 한국의 경제력은 여전히 세계전체와 비교하여 열세이지만, 결단코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밀착시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2)의 <표 2>에서 아시아 주요국가

38) It is apparent that multilingualism—the ability to speak, at some level, more than one language—is a widespread global phenomenon(Edwards, 1995:33).

들과의 교역이 한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의 0.349에서 2000년에 0.365로 그리고, 2001년에는 0.366으로 증가해온 반면에 미국과 EU가 차지하는 비율은 하락 추세를 보여 온 점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외 직접투자는 아시아에서의 한국 경제의 위상을 더 한층 분명히 해준다.

(13) <표 3.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2001년 8월-2002년 8월)>

단위: US\$ 천

Source: 한국수출입은행(2002)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총계
총 신고건수	1,826	531	73	166	2,596
총 신고금액	2,058,833	1,487,334	662,247	311,156	4,519,570

<표 3>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다른 지역의 추종을 불허한다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이 최소한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갈수록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13)에서 의미한다.

둘째, 근래에 아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韓流)'의 역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류(韓流)'의 정의, 유래 그리고, 그 범위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한국이 만들어내는 무형의 문화상품 즉, 음악, 패션, 영화, 방송 등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증가를 그 표면적인 특징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 상징하고 추구하는 가치에 관하여, 다른 아시아인들이 바람직하고 본받을 만한 소프트 파워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Joseph Nye(2002)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한국 내 있는 한국어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점점 커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시아 이외의 지역 예를 들면, 북미지역이나 유럽지역에서 이에 비견되는 현상을 목격하는 것은 거의 지금까지도 그리고,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할 지 모른다.

셋째, 한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계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4)의 <표 4>에서 2001년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중에서 아시아계가 약 79%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적 교류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이 아시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들 아시아인들 다수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14) <표 4. 2001년 현재 장 단기 체류 외국인 국적>

단위: 명

Source: 법무부(2001)

아시아	397,096
한국계 중국인	101,068
중국	85,480
필리핀	28,399
일본	25,802
타이	21,744
인도네시아	20,447
베트남	19,656
방글라데시	18,934
몽골	16,436
우즈베키스탄	10,142
북아메리카	75,464
남아메리카	1,862
유럽	18,447
오세아니아	4,654
아프리카	4,005
총계	501,958

이러한 이유로 한국말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language community)가 만들어진다면, 아시아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말의 국제화 가능성이 다른 어떤 경우보다 크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으로 가능한 조건에 타당한 한국말의 전파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과가 달리 나타날 것임은 자명하다.

4.3. 한국말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전략

위 4.2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말이 국제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그러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

첫째, 한국말의 국제화에 부합하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 보급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15) <표 5. 외국인들 우리말 교육교재>

저자 또는 출판기관	교재명	출판사
서울대 어학연구소	한국어1,2,3 (영어판)	한림출판사
서울대 어학연구소	한국어1,2,3 (중국어판)	한림출판사
서울대 어학연구소	한국어1,2,3 (일어판)	한림출판사
서울대 어학연구소	한국어1,2,3 (러시아어판)	한림출판사
서울대 어학연구소	한국어1,2,3	도서출판 풍남
연대 한국어학당	한국어1,2,3,4,5,6급	연대출판부
연대 한국어학당	한국어독본 초급1,2급	연대출판부
연대 한국어학당	한국어독본 중급3,4급	연대출판부
연대 한국어학당	한국어독본 고급5,6급	연대출판부
연대 한국어학당	활용연습 1,2,3급	연대출판부
시사한국어교육원	한국어 초급	시사영어사
시사한국어교육원	한국어 초급 연습문제(3권)	시사영어사
시사한국어교육원	한국어 중급1	시사영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어 연수원	한국어1	외대출판부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어 연수원	한국어 2,3,4,5,6	외대출판부
한국어 문화 연수부편	한국어 1,2,3,4급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 문화 연수부편	한국어 5,6급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 문화 연수부편	표준한국어발음연습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 문화 연수부편	표준한국어발음연습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 문화 연수부편	한국어회화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 문화 연수부편	한국어회화2,3,4,5,6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 문화 연수부편	듣고 배우는 한국어(일본인용)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 문화 연수부편	유타의 한국어 기행(일본인용)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이대 언어교육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1	이대출판부
이대 언어교육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2	이대출판부
이대 언어교육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3,4,5,6	이대출판부
이대 언어교육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1(숙제)	이대출판부
이대 언어교육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2(숙제)	이대출판부
이대 언어교육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3,4,5,6(숙제)	이대출판부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한국어1,2,3,4,5,6,7급	
정치회	알기쉬운 한국어1	명지출판사
정치회	알기쉬운 한국어2	명지출판사

김영희, 김건희	안녕하세요?	학연문화사
임호빈, 홍경표, 강숙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한글판, 영어판, 일어판)	연대출판부
Keedong Lee	A Korean Grammar on semantic-pragmatic principles	한국문화사
B.J. Johes	Let's speak Korean	한림출판사
Suk-in Chang	Modern Conversational Korean	Seoul Press
John H. Koo	Basic sentence patterns in Korean	삼지사
Namgui Chang, Yong-chol Kim	Functional Korean	한림출판사
Choonwon Kang	You can speak Korean	한림출판사
P.K. Lee& C.S. Ryu	Easy way to Korean conversation	한림출판사
P.K. Lee& C.S. Ryu	Let's talk in Korean	한림출판사
Injung Cho& Young-a Cho	Korean through active listening	한림출판사
강태식	한국어입문(일본어판)	시사일본어사
박용득	Speaking Korean Book1	한림출판사
박용득	Speaking Korean Book2	한림출판사
박용득	Speaking Korean Book3	한림출판사
맹주익	재미있는 한국어上下(중국어용)	한림출판사
Fred Lakoff	An Introductory Course in Korean Book1	연대출판부
Fred Lakoff	An Introductory Course in Korean Book2	연대출판부
Fred Lakoff	An Introductory Course in Korean Book3	연대출판부
농심	NDS Language Korean	data system

Source: <http://choish60.hihome.com>

(15)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접할 수 있다. 문제는 4.2에서 확인한 한국말이 국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지역과 외국인을 위하여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교육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다. 가장 많은 비중의 교재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쓰여진 교재이지만, 다음으로 자주 유력시되는 언어는 영어로 된 교재이다.³⁹⁾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와 러시아

39) 2002년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아래, 언급된 한국어의 교재는 대부분이 미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내용을 거론하고 있다.

아어 판이 뒤따라온다. <표 5>에서 다른 아시아 지역의 언어, 예를 들어 몽고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타일랜드어, 베트남어 등으로 쓰여진 교재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표 5>의 교재와 그 교육언어의 분포를 가지고, 언어전파 모델인 (5)에 적용시켜 보면, 마치 한국경제가 세계강대국들 즉, 영미와, 일본, 러시아, 중국과 비견할 만하고, 이들 만큼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있고, 또한 이들 나라들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필요로 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논증에서 분석한 결과 내지 현실과 불일치한다.

만약, 이들 강대국들에 한국어를 보급시켜 한국어의 세계적인 전파를 실현시키겠다는 생각이 그 동안 한국어사회를 지배한 결과라면, 이는 비과학적인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어 사회 내 필요한 일은 한국말이 인류의 삶에 의사소통 요소로 또는, 경제적으로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화자나 지역 곧, 아시아 지역의 언어로 된 한국어교재 그리고, 한국어교수법을 개발, 보급하는 일이다.

둘째, 아시아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보강하기 위하여 한국의 고급문화를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차원의 ‘한류(韓流)’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는 그 전파 속도와 파급력에 있어서 순수예술이나 학술분야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후자는 전자를 기능상 압도하고, 후자는 전자보다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곧, 할리우드(Hollywood) 영화와 팝송, 그리고 대중잡지가 영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영어의 중심에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문학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잊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영미언어 중심의 한국 문학 번역사업을 아시아권언어로도 전환할 수유가 있다.

셋째, 한글이 가지고 있는 과학성을 심분 활용하는 것이다. 말의 우월은 가리기 힘들지만, 글자의 우월은 가릴 수 있으며, 특히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기하학적이어서 배우기 쉽다. 더군다나 다른 어떠한 글자보다 더 많은 소리를 문자로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무엇보다 아시아의 곳곳에 존재하는 무문자 민족에게 한

글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한글의 보급은 궁극적으로 한국말의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을 높여줄 것이다. 따라서 한국말의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와 함께 한글의 전파에도 힘을 쏟을 필요와 가치가 있다.

넷째, 한글의 우수성과 연관된 것으로 한국말의 수용성(accepta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권에 아시아 지역에 적합한 한국말의 크레올(creole)과 피진(pidgin)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자모의 개발과 맞춤법의 고안, 그리고 띄어쓰기의 단순화 등이 각각 나라나 언어공동체 영역 별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 습득 시간이 길고 어렵다면, 그 만큼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자명하다. 한국말을 배우는 사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할 때, 한국말은 더욱 강력한 전파력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특정 언어의 국제적인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조건들이 범세계적으로 충족될 때에만 해당언어가 명실공히 세계어(global language)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영어가 이러한 세계어의 개념에 가장 가까이 있으며, 한국어는 다수의 사람들의 믿음에 못 미치게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을 밝히어 내었다.

그러나, 영어와 한국말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 동시대적이고(contemporaneous), 횡단면적(cross-sectional)인 분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영어가 국제화된 과정을 한국어가 결코 답습할 수 없는 것이다. 영어가 세계의 언어로 성장하는데, 과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앵글로-색슨(Anglo-Saxon)국가들의 제국주의적인 팽창이 의미있는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 제국주의적인 지배가 지금의 그들의 경제력을 가능하게 하였고, 강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또한 세계 곳곳에 많은 영어 공동체⁴⁰⁾를 만드는 데, 적지 않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를 생각하게 한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만약 한국어사회도 영어사용국가들과

동등한 출발점에 서 있다면, 한국말이 세계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식민지 제국주의시대는 벌써 끝났고, 그 시대에 만든 질서의 흔적이 청산되지 않은 채, 새로운 시대인 세계화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 버렸다. 영어는 한 때 제국주의 시대의 언어이었고, 한국어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시대를 역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어(global language)가 일종의 역사적 산물인 이상, 한국어가 그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더 이상 세계어(global language)의 출현은 가까운 미래에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언어의 세계적인 전파는 이미 영어의 출현과 함께 1개의 언어로 완결된 지난 일(*a passé*)인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어가 세계화될 가능성을 아직 과학적으로 찾지 못 하였지만, 2.에서 발전시킨 모델 (4)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충분히 국제어(international language) 또는 'lingua franca'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성취하려면, 지금까지 한국어의 세계적인 전파를 위해 추진하여 왔던 전략과 사고를 분리하여, 먼저 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적인 전파에 도움을 주게 수정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 이는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한국어도 세계어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의 결별을 얼마동안 예측하는 일이다. 이러한 변화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며, 이러한 경우에만 한국말의 국제적인 전파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세계화되는 영어 안에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 8.10-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현재와 미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 초록집」.
- 김영명. 2000. 「나는 고발한다」. 서울: 한겨레신문사.
- 김형중. 1999. "언어공동체 유형의 의미와 언어계획: 캐나다 서부의 관점에서." 「사회언어학」, 7-2, 사회언어학회.
- 김희숙. 2001.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South

40)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식민지 개척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 Korean Society.” 『이중언어학』, 제 18호, 이중언어학회.
- _____. 2001. “한국어 세계화와 영어공용화론 시장원리문제.” 『한국어의미학』, 8. 한국어의미학회.
- 데이비드 크리스털(David Crystal(1997),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유명난 옮김, 2002). 『왜 영어가 세계어인가』. 서울: 코기토.
- 박순애, 배종각. 2000. 일체의 대한 언어정책과 언어정책론, 한양일본학, 189-206
- 박영순. 2001. 『한국어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 복거일. 1998. 『국제어시대의 민족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성광수. 1996.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위한 언어정책 검토: 한국어 세계화의 제문제.” 『이중언어학회지』, 제13호, 이중언어학회.
- 송기증. 1993. “언어정책” 국어학회편. 『세계의 언어정책』, 태학사.
- 이기백. 1993. 『한국사 신문』, 서울: 일조각.
- 임영철. 1998. “일본의 언어계획 및 언어정책.” 『사회언어학』, 제6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어린이 영어학원 및 방문 학습지 이용실태 조사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2000).
- 안정호. 2000. 『가짜영어사전』, 서울: 현암사.
- 정 광. 2001. “해외한국학연구의 현황과 그 지원의 효율성 연구.” 『이중언어학』, 제19호, 이중언어학회.
- 조순, 정운찬. 2000. 『경제학원론』. 박영사
- 조지프 나이(홍수원 역). 2002. 『제국의 페러독스』. 서울: 세종연구원
- 코츠, 제니퍼(Jennifer Coats(1989)), Women, Men and Language(김희숙 옮김, 1998), 『성과 언어』. 청주대학교 출판부.
- 국립국어연구원 편.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헌팅턴, 새뮤얼(이희재 옮김). 1997.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 최은경. 2000. 『세계영어들의 정체성: 그 신화와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문화부, 국어발전종합계획 수립.” 2002년 10월 9일, 조선일보.
- 『출입국통계연보』. 법무부, 2001.
-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한국수출입은행, 2002.
- 한국과 주요국의 연도별 교역, 통계자료, 산업자원부, 2002.
- 『한국어 교육 교재』, <http://choish60.hihome.com>.
- Marx, Karl(translated by Ben Fowks). 1977. Capital, volume one, NY, NY, Vintage Books.
- Williamson, Oliver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 of Capitalism, NY, NY, Free Press.
- Edwards, John. 1995. Multilingualism, NY, Penguin Books.
- A world Empire by other means, Economist, Dec 20, 2001 (<http://www.economist.com/world/europe/PrinterFriendly.cfm?Story>).
- Inoue, Fumio. Market Value of Languages, 한국사회언어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Proceedings:13-24.
- Kachru, Braj B. 1986. The Alchmy of English.

- _____. 1992. World English: Approaches, Issues and Resources, Language teaching 25(1).
- _____. 1995. Past Imperfect: The Other side of English in Asia, A paper read at IAWWE Conference held in Nagoya, Nagoya: Japan, 최은경(2000), 세계영어들의 정체성, 한국문화사.
- Kim, Chin w. 1996. Globalization of Korean: Transplant or Implant?, Eui Hong Shin, ed., Korean in the Global Community: pp191-205,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 Mulhausler, Peter. 1996. Linguistic Ecology: Language Change and Linguistic Imperialism in the Pacific Region, NY, Routledge.
- Pennycook, Alastair. 1994. The Cultural Politics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NY, Longman.
- Pennycook, Alastair. 1998. English and the Discourses of Colonialism, NY, Routledge.
- Philipson, Mark.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ncyclopedia of Britannica. 1969, vol. 12.
-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1974.
- Spolsky, B. 1998. Sociolinguistics: 김재원 등 공역(2001), 사회언어학, 박이정.
-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2.

김희숙(Kim, Hee-sook)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ChongJu University
043)229-8319
johes@chongju.ac.kr, syeahk@kornet.net

접수일자 2002. 9. 20
게재결정 2002. 10. 30